

# 시민 위한 의정활동 '전력'

지역 현안 해결 · 지역발전 이바지... 의회 역할 충실

**제** 9대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사진)가 지난 4일 개원 1주년을 맞았다.



남원시의회 16명은 지난 1년간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 총 9회의 회기일정을 운영하며 꼼꼼한 시정을 통해 현안을 파악했고, 예산·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의회 본회의장

### ▲올바른 대안 제시 및 활발한 입법 활동

남원시의회는 꼼꼼한 정책·업무 분석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앞장섰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적정 지도, 공모사업시 의회와 소통 관내 제품 우선 구매방안 모색,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민선 등 총 594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거나 건의했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추진상황, 2022년 하반기 인사문제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점, 시장의 인사관련 제반문제 등 4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9번의 회기를 통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조례 제·개정안 105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안 25건, 기타 55건 등 총 19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과 밀접한 자치 입법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47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54건의 5분 자유발언, 15건의 건의·결의안 채택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 ▲국립의원 유치 활동

남원시의회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메이커스 신축사업, 면지역 행복문화센터,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공동체 지원센터, 합파우 아트밸리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문제점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정에 반영토록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대학

1년간 총 196건 안전 처리 민생과 밀접 입법활동 매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위 구성,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통과 지원

냉해 피해 입은 농가 찾는 등 주민 안전 위해 현장 누벼

의정역량 강화 · 연구 활동 지속 추진... 의정 전문화 일환



국립의원 유치 지원

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힘쓰는 한편 5분 자유발언, 건의안 피켓시위 등 남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의정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양돈 악취 민원현장에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했고 산불기동대, 도로 및 제설 관리부서, 환경업무 등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봄철 냉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하고, 호우경보 등 각종 자연재난시에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누볐다.

###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 소통 강화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의정 역량 강화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의정연수를 통해 조례 입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원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꾀했고, 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성공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구룡계곡 역사 생태 보존연구회 △요천 경관 연구회 △조례분석연구회 △남원형 치유농업연구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 다양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책지원관을 채용, 남원의 현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굴하며 의정활동 강화에 힘썼다.

또한 각종 지역 행사 및 간담회에 수시로 참여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농가,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며 민의 대변자로서 시의 정책 방향에 큰 기틀을 세웠으며, 시민을 위해 공부하고 대안 제시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 의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



냉해 피해 현장 방문

책무라는 소명감을 갖고 새로운 미래 남원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 갈 것"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후 출범한 제9대 남원시의회는 다선 의원의 경험과 초선 의원의 열정이 합쳐져 단기간에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 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평기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